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 이주준비 및 농촌 적응과정 실태에 관한 연구

Migration Preparation and Adaptation to Rural Area of Returning Farmers after Retirement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노인연구실장 박 공 주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 수 김 양 희
조교수 박 정 윤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Senior Researcher : Park, Gong-Ju
Dep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
Professor : Kim, Yang-hee
Assistant Professor : Park, Jeong-yun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tired elderly who had moved to rural areas. The pro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point at which there must be a difference in the patterns of a return to farming and determine the actual condition of their preparations for migration. This study had surveyed 408 seniors who were over 50 years old and had moved to rural areas after their retirement and analyzed the data by the SPSS PC 11.0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levancy of U-turn, J-turn, and I-turn types that were affected by social demography was found to be dependent on their education levels and family patterns. Secon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ocess of preparation by the types of a return to the farming were different according to the motivation and preparation fund. Nevertheless,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the influence of their spouses. Third, the actual conditions of the process of adaptation by the patterns of a return to the farming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degree of efforts

of the social support and elevation of the friendship among the neighbors. The recognition of rural life problems were more acquainted towards the area of farming life. Among the 6 problem areas, leisure, health care, and economic problems were highly considered.

주제어(Key Words): 은퇴후 귀농인(seniors who have migrated to farms after their retirement), 농촌적응(return type), 귀농유형(satisfaction of their new life)

I. 서론

우리나라의 최근 인구이동의 동향은 농촌으로 유입되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거 젊은 층의 향도이촌(向都移村) 속에서도 부분적으로 귀농은 이어져 왔으나, 80년대 후반부터 불기 시작한 농촌으로의 귀향운동은 사회일반적인 추세로 서서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이후 2004년 12월까지의 귀농가구는 22,703가구로 알려졌다(농림부, 2006). 1980년대부터 IMF 이전까지의 귀농은 끊임없이 이어진 도시로의 이동 속에서 늘어만 가는 각종 도시집중화 문제 야기로 도시생활에 회의를 갖게 된 사람들의 귀농이 많았다. 그 뒤 1997년부터 불어 닥친 IMF 한파는 도시 실업자들을 농촌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이들의 상당수가 실직이나 취업의 어려움에 기인한 것(강대구, 김경남, 김민수, 이웅, 변규식, 2006)으로, 어쩔 수 없이 대안없는 선택의 길을 택한 귀농현상은 일시적인 붐을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의 귀농은 전과는 달리 각박한 도시 환경에 대한 불만과 웰빙(Well-Being) 바람과 함께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여기는 추세이다(김성훈, 2006).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농촌으로의 이주 현상은 이제 농촌도 살만한 공간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2006)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귀농자들은 농업을 영위하려고 오는 사람이라기보다 노후를 보내기 위하여 귀농하는 것으로, 이들은 쾌적한 삶의 조건을 추구하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노년 세대의 귀농은 농촌생활 자체를 선호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이주가 많다. 은퇴후 귀농인들에게 농촌은 농업이라는 생산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즉, 고령화사회의 해법을 '일하는 노인', '노인의 생산성'에서 찾는 점으로 볼 때, 농업은 정년없이 본인의 의사만 있으면 종사할 수 있고, 자신의 건강이나 힘에 맞추어 영농 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귀농현상에 대한 학문적, 사회적 접근이 있었다. 그러나 귀농을 다루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IMF 사태 직후에 이루어진 연구들로서, 새로운 직업인 '농업'을 찾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를 한 청장년층의 전직에 관한 연구들이었다(구본석, 1999; 금재홍, 1998; 김일수, 1999; 김주현, 1999; 김형용, 1998 등). 즉 일반 귀농인 개인차원에서 귀농이라는 기본적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영농활동 중심의 연구와, 국

가 차원에서 농촌으로 귀직을 해온 젊은이의 농촌유입에 따른 영농구조 정책방향성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중노년의 귀농 후 적응을 위한 실태 및 적응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농촌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의 부족으로 귀농하여 농촌에 살고 있는 귀농인들이 농촌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도시로 떠나는 재탈농화 현상(동아일보, 2005)을 낳고 있다. 따라서 귀농인의 실태, 적응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촌 정착은 농촌이주를 위한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친 뒤 이주 후 적응과정에서의 노력 정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도시민들의 은퇴 후 농촌으로의 이주는 성격이 다르고 그 적응과정 또한 다르나, 아직까지 이를 살펴보고 있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도시생활에 익숙해 왔던 사람이 농촌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귀농유형에 따라 여러 요인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농촌생활의 적응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은퇴 후 중·노년기에 귀농한 귀농인들의 농촌이주 준비 과정과 농촌이주 후 적응과정 관련 변인들을 귀농유형에 따라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앞으로 은퇴자의 귀농지원을 위한 국가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에 따른 농촌이주 준비실태와 농촌이주 후 적응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도시은퇴자의 농촌정착으로 도시와 농촌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별((U, J, I형) 농촌이주 준비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별((U, J, I형) 농촌이주 적응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별((U, J, I형) 농촌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귀농에 대한 이해

귀농의 의미는 '농촌을 떠났던 사람이 다시 농촌으로 돌

〈표 1〉 귀농경로

구분	농촌→도시→고향농촌	농촌→도시→타향농촌	도시→농촌	이동없음	기타	합계
빈 도(명)	177	108	80	6	4	375
백분율(%)	47.2	28.8	21.3	1.6	1.1	100.0

자료 : 농림부, 2006.

아가거나 돌아와 농사를 지음'을 말한다. 귀농이라는 용어에는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적이 없었건, 농촌에 살던 사람이 도시로 떠났다가 돌아오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강대구 외 4인, 2006). 그리고 은퇴자들이 노후를 농촌에서 살기 위하여 농촌으로 이주하는 것을 귀농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 남정덕(2000)은 귀농형 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이 농촌으로 돌아가 영농을 하면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유료 노인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 '귀농형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노인이 은퇴 후 농촌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귀농'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귀농인의 영역을 은퇴자가 농촌으로 삶의 장소를 옮겨서 일정 정도의 농업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될까지를 범주에 포함하였다.

귀농인의 유형은 도시와 농촌, 고향과 타향으로의 공간을 구분하여 고향농촌에서 거주하다가 도시로 이동한 후 다시 고향 농촌으로 되돌아온 U턴 귀농자, U턴 귀농자와 달리 고향인 농촌으로 귀농하지 않고 연고가 없는 타 지역의 농촌으로 귀농한 J턴 귀농자, 처음부터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이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취업생활을 영위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한 I턴 귀농자로 분류(서규선, 변재면, 2000) 하였다. 이 세 유형의 귀농경로는 〈표 1〉과 같이 농림부(2006)가 밝힌 귀농경로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즉 전통적인 귀농의 정의처럼 농촌에서 나갔던 사람의 귀환만이 아닌 도시에서 유입된 인력, 그 외에 농촌에서만 살았고 떠났던 적이 없었던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 결과 U-턴형 귀농자가 47.2%정도이고, J-턴형 귀농자가 28.8%, I-턴형 귀농자 21.3%로 구성되며, 이외에 이동없는 경우와 기타까지를 귀농형태로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림부(2006)와 서규선과 변재면(2000)이 사용한 세 유형(U, J, I turn)의 귀농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귀농관련 이론

1) 귀농 적응이론

적응은 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요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만족되느냐, 만족되지 않느냐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

이고,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는 부적응 상태에 있게 된다. 귀농지역에서 적응을 위해서는 정신적 불안 극복, 새로운 직업 및 기술의 습득, 주거확보, 농촌생활 양식 및 문화가치의 습득으로 귀농자들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느냐에 관한 것이다(이동하, 1998). 귀농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지역에서의 적응정도가 귀농 인구이동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Lee & Kim, 1980)으로, Moore(1970)는 귀농 인구의 이동과정을 잠재적 이동성, 탐색과 평가, 적응 등 3단계 과정으로 설명한 바 있고, Fielding(1974)은 이주 과정을 이주 동기의 형성, 이주 의사결정, 이주 실행까지의 이주 탐색단계와 이입지에서의 정착 및 적응이라는 이주 적응단계의 2단계 과정으로 나누었다. 특히 이주자가 이입지에서 욕구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귀환이동을 하거나 재이주를 할 수도 있으며, 만일 적응이 성공적이면 다른 사람들의 이주를 돕거나 자극하게 된다고 하였다.

2) 은퇴 후 활동이론

서구에서는 일찍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 수록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활동이론(Activity Theory)의 입장이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우세적으로 지지되어왔다. 노동과 생산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서구사회에서 형성된 활동이론이 우리나라에도 적용가능한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작업이 1980년대부터 이루어졌고, 이 이론의 입장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윤순덕, 2004). 활동이론은 노년기에도 중년기와 비슷한 활동이 유지될 것이며,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 상실된 역할과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 및 활동을 찾게 됨으로써 자아정체감(self identity)을 재확인, 유지하게 하며 이는 생활만족도를 높게 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은 일과 생산성을 강조하는 사회의 가치체계와 일치하고 있어 노년기 활동을 지속시키는 정책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의 귀농관련 이론 중 귀농적응이론과 노년기 활동이론을 본 연구에 연결시켜 보면, 은퇴 후 생산적 활동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들이 농업이라는 새로운 활동과 농촌이라는 생소한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는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적응

은퇴 후 농촌으로 순조롭게 잘 정착하는 것은 그 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며, 그 요구가 과연 그 환경 속에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의 적응 상태를 말한다. 귀농은 생활환경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단절을 초래하기 때문에 귀농지에서 상당기간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귀농이 제2의 직업선택인 만큼 농촌으로 정착하여 농촌생활에 얼마나 만족하면서 사느냐에 따라 적응의 길이 달라질 것이다.

농촌생활만족 관련 변인 고찰 연구를 살펴보면 김경미, 정지웅(1990)은 농촌성인의 사회적 적응관련 연구에서 가정생활만족도, 영농활동성취 만족도, 사회문화시설 편익만족도, 지역사회참여 만족도, 정보접촉 만족도 등 5분야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이동하(1998)는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에 대한 연구에서 생태적 적응, 직업적 적응, 사회적 적응의 3분야를 나누고, 생태적 적응 요인에 주거만족도, 귀농만족정도, 자연환경만족정도 등 7항목을 설정하였고, 직업적 적응 요인으로 작목선택 자금조달, 영농기술 습득 등 5항목, 사회적 적응 요인으로 이웃친숙도, 문화생활만족도, 자녀교육만족도 등 9항목의 요인을 설정하여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요인을 도출해 내기 위해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영역의 농촌생활만족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농촌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도출해 내기 위해 귀농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농촌이주 준비과정에서의 요인, 농촌이주 후 과정에서의 요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사회인구학적 요인은 연령이나 성별, 건강상태, 교육수준, 경제상태, 가족형태 등이 생활만족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주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구본석, 1999; 이동하, 1998; 고승덕, 1996; Bock & Webber, 1972; 권중돈, 조주연, 2000;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 1999; 서미경, 김정석, 1995; 원영희, 1995; 김재돈, 남철현, 1997; 신은영, 1993; 박광희, 한혜정, 2002에서 재인용; 김미진, 1999). 농촌이주 준비과정에서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는 귀농을 위한 사전준비, 영농교육, 귀농지역 결정, 귀농을 위한 적절한 경제상태 등 여러 요인이 있다(서규선, 변재면, 2000; 정한모, 2002; Graves & Graves, 1974; 최원규, 백승우, 2001; 구본석, 1999; 박영일, 1998; 이정관, 1998; 조동석, 1998). 농촌이주 후 과정에서 귀농인들의 농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원관계, 농촌생활 인식정도 등의 요인이 있다(정한모, 2002; 신윤철, 김동섭, 배성의, 윤준상, 1998; 서병숙, 이현, 1995; 임혜영, 1999).

Ⅲ. 연구방법

1. 측정도구의 구성

1) 개인적 특성 변인

조사대상자인 귀농인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유형, 농촌이주 전 직업 등 총 6영역을 측정하였다.

2) 농촌이주 준비과정 변인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농촌이주동기, 농촌경험정도, 농촌이주 준비정도, 영농경험 정도 등 4영역을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3) 농촌 적응과정 변인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이주 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망, 농촌생활 인식수준 등 2영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지원망은 이웃으로부터의 도움정도와 이웃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웃으로부터의 도움 정도는 총 3문항으로 3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고, 이들의 Cronbach' α 값은 .60으로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향상을 위한 노력정도는 총 5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의 Cronbach' α 값은 .78로 나타났다. 농촌생활인식수준은 농촌에 거주하면서 여가, 의료, 편의시설, 인적교류, 교통, 경제활동 부문에 있어서 어느 정도 불편함을 느끼는지에 관한 항목으로 총 6문항이며, 5점 리커트 척도이다. 즉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함을 인지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Cronbach' α 값은 .77로 나타났다.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적응 정도를 알기위해 위하여 농촌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사용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농림부, 2000; 한경혜, 윤순덕, 2001; 이형실, 1996)를 기초로 본 연구에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하여 구성하였다. 농촌생활만족도의 구성은 가족관계 만족도, 친구나 이웃간의 사회적관계 만족도, 주거상태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영농활동 만족도, 경제활동 만족도, 주관적 경제수준 만족도 등 6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척도의 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 1점, "매우 만족한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Cronbach' α 값은 .80으로 나타났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는 농촌으로 이주한 만 50세 이상인 귀농자를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명에게 예비

조사 후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6일간에 걸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70개 시·군에 거주하는 귀농인 465명을 대상으로 면접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460부 가운데, 연구대상의 자격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된 52부를 제외하고, 총 40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WIN 11.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기 위해서 교차분석을 통해 전반적인 경향 및 귀농유형별 차이를 파악하였다. <연구문제 1>의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 2>의 은퇴 후 귀농인의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적응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귀농유형별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표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귀농유형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간의 교차분석한 결과, 귀농유형에 따른 유의미한 관련성을 나타낸 변인은 교육수준과 가족유형이었다.

먼저 교육수준과 귀농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U전형의 경우 학력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의 비율이 45.2%, 고졸이 39.2%, 대졸이상이 15.7%의 순으로 나타났다. J전형의 경우 중졸이하의 비율이 45.7%, 고졸 41.1%이었으며 대졸이상이 13.2%로 나타나서 전체적인 비율이 U전형과 J전형이 고졸이하의 학력수준을 갖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I전형의 경우 중졸이하의 집단비율이 35.4%, 고졸집단이 32.3%, 대졸이상이 32.3%를 차지하여 3 집단 모두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앞의 U전형, J전형의 두 집단에 비해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력수준이 타 유형에 비해 높은 것은 교육여건이 농촌보다 월등히 좋은 도시에서 생활한 이유라 여겨진다.

다음으로 귀농유형과 가족유형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결과를 살펴보면 U전형의 귀농유형은 부부만의 가족형태를 갖는 비율이 63.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부+자녀의 핵가족유형이 10.9%, 독신과 부부+자녀+노부모인 3세대 가족유형이 각각 9.2%의 순으로 특성을 보였다.

J전형의 경우 U전형과 마찬가지로 부부만의 유형이 50.8%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지만, U전형 보다는 전체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I전형의 경우 유사한 경향성으로 부부만의 가족유형이 45.4%로 3형태의 귀농유형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J전형과

<표 2> 귀농유형별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인		U전형	J전형	I전형	chi-square	N(%)
성별	남자	156(89.7)	118(88.7)	80(82.5)	3.182	
	여자	18(10.3)	15(11.3)	17(17.5)		
연령	50~59세	79(45.4)	62(46.4)	44(45.4)	.182	
	60~69세	75(43.1)	57(42.9)	40(41.2)		
	70세 이상	20(11.5)	14(10.5)	13(13.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75(45.2)	59(45.7)	34(35.4)	15.141**	
	고 졸	65(39.2)	53(41.1)	31(32.3)		
	대졸 이상	26(15.7)	17(13.2)	31(32.3)		
가족 유형	혼 자	16(9.2)	14(10.6)	17(17.5)	17.496**	
	부 부	110(63.2)	67(50.8)	44(45.4)		
	부부+자녀	19(10.9)	31(23.5)	23(23.7)		
	부부+자녀+노부모	16(9.2)	12(9.1)	8(8.2)		
	기 타	13(7.5)	8(6.1)	5(5.2)		
건강 상태	매우 좋지 않다	9(5.2)	9(6.8)	9(9.4)	8.559	
	좋지않은 편이다	28(16.2)	16(12.1)	15(15.6)		
	보통이다	75(43.4)	60(45.5)	31(32.3)		
	좋은 편이다	52(30.1)	37(28.0)	30(31.3)		
	매우 좋다	9(5.2)	10(7.6)	11(11.5)		
이주전 직업 유형	농업·단순노무직	46(26.6)	32(24.1)	14(14.6)	10.580	
	전문직·관리직·사무직	49(28.3)	39(29.3)	35(36.5)		
	자영업·영업직	64(37.0)	56(42.1)	35(36.5)		
	기타(무직·전업주부)	14(8.1)	6(4.5)	12(12.5)		

**p<.01

I턴형의 경우 U형에 비해서 부부+자녀의 핵가족 형태의 비율이 각각 23.5%, 23.7%로 비교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합해 보면, 부부만의 가족유형의 비율은 U턴형이 J턴이나 I턴형보다 높았고, 부부+자녀의 가족유형은 J턴과 I턴형이 U턴형보다 높았다. 혼자거주하는 형태는 I턴형이 U턴과 J턴형보다 높았다.

IV. 연구결과

1.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과정 실태

1)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동기 변인과의 관련성

귀농유형과 농촌이주동기요인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이 나타났다. 귀농유형별 농촌이주동기요인이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인 변인은 이주계기, 이주 반대이유, 이주 지지자로 나타났다.

귀농유형과 이주동기 요인 각각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U턴형은 이주계기가 '경제적인 여건'의 이유가 27.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이주할 지역의 주거나 주변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서' (22.7%), '건강상의 문제' (16.3%)의 순으로 나

타났다. J턴형의 이주계기는 '이주할 지역의 주거나 주변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서' 라고 응답한 비율이 31.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건강상의 문제' (29.5%), '경제적인 문제' (19.7%)의 순으로 나타나서 U턴형과는 다른 양상을 띄고 있다. I턴형의 경우 J턴형과 유사하게 '이주할 지역의 주거나 주변 친구들이 마음에 들어서'가 41.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인 문제' (23.2%), '건강상의 문제(17.9%)를 차지하여 귀농유형별 이주계기가 부분적으로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귀농유형별 농촌이주를 반대하는 이유는, U턴형의 경우 '힘든 농사일'에 대한 부담(31.3%)과 경제적인 '소득수준이 낮음' (28.9%)이 이주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관계단절'에 대한 부담감은 매우 낮은데, 이는 U턴형의 경우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의 귀농이라는 점이 가져온 결과라고 여겨진다. J턴형은 '힘든 농사일'에 대한 어려움의 이유가 34.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여건'의 열악을 반대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I턴형은 농촌이주결심을 꺼리는 이유가 앞의 두 유형과는 다르게 '자녀교육에 대한 염려'가 32.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농사일에 대한 부담(27.0%), '문화여건의 열악함' (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조사대상자의 I턴형이 이주계기에서와 같이 사회적 수준(장소, 집, 동료)과 경제적 수준이 다른 두 유형에

〈표 3〉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동기 변인과의 관련성

변인		U턴형	J턴형	I턴형	chi-square	N(%)
이주 계기	장소, 집, 동료	39(22.7)	41(31.1)	39(41.1)	27.000**	
	경제적인 여건	48(27.9)	26(19.7)	22(23.2)		
	건강상의 문제	28(16.3)	39(29.5)	17(17.9)		
	직장상의 문제	23(13.4)	15(11.4)	6(6.3)		
	가족간갈등문제	6(3.5)	3(2.3)	3(3.2)		
	기 타	28(16.3)	8(6.1)	8(8.4)		
농촌 이주 결심	본 인	137(78.7)	96(72.2)	66(68.0)	5.232	
	배 우 자	12(6.9)	15(11.3)	13(13.4)		
	부모·자녀	4(2.3)	4(3.0)	2(2.1)		
	부부공동	21(12.1)	18(13.5)	16(16.5)		
농촌 이주 반대자	없 었 다	93(53.4)	68(51.5)	59(63.4)	10.352	
	배 우 자	59(33.9)	48(36.4)	17(18.3)		
	직장동료·친구	4(2.3)	3(2.3)	2(2.2)		
	부모·자녀	18(10.3)	13(9.8)	15(16.1)		
반대 이유	자녀교육문제	18(21.7)	13(19.7)	12(32.4)	15.271*	
	힘든 농사일	26(31.3)	23(34.8)	10(27.0)		
	저 소득	24(28.9)	8(12.1)	3(8.1)		
	문화여건 낙후	12(14.5)	17(25.8)	8(21.6)		
	사회적관계단절	3(3.6)	5(7.7)	4(10.8)		
이주 지지자	없 었 다	51(29.7)	33(26.2)	27(29.0)	13.194*	
	배 우 자	66(38.4)	67(53.2)	45(48.4)		
	부모·자녀	33(19.2)	19(15.1)	8(8.6)		
	직 장 동 료	22(12.8)	7(5.6)	13(14.0)		

*p<.05 **p<.01

비해 높고, 앞에서 살펴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가족유형 중 단독(혼자)이주가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은 이유라 추측해 볼 수 있는 결과이다.

이주 지지자와 귀농유형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U턴형의 경우 '지지자가 없거나 배우자' 라는 비율이 68.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부모·자녀, 직장동료 및 친구의 지지자 각각 19.2%, 12.8%의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J턴형과 I턴형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J턴형의 경우 이주 지지자가 '배우자'가 53.2%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지지자가 없다'가 26.2%, 부모나 자녀가 15.1%를 차지하였고, I턴형은 이주 지지자가 '배우자'가 48.4%로 높았고, 다음이 지지자가 '없었다'가 29%, 다음은 '직장동료나 친구'가 14%를 차지하고 있다. J턴형과 I턴형에서 배우자의 영향력이 이주를 결정하는데 영향력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기는 하였지만 배우자의 어떤 요인이 이주결정의 원인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할 수 없으므로 추후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2) 귀농유형별 농촌경험정도 변인과의 관련성

농촌이주 준비 과정변인 중 농촌경험정도가 귀농유형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농촌거주경

험, 농촌사정인지정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거주경험 유무의 경우 U턴형과 J턴형의 경우 농촌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80~90%에 해당하여 3/4정도를 차지하는 반면에 I턴형은 농촌경험이 없는 비율이 60.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주 전 농촌사정 인지정도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이는데 U턴형과 J턴형은 농촌 사정에 대해서 비교적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5.3%, 59.4%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I턴형의 경우 오히려 잘 알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비율이 62.9%를 차지하여 농촌 U턴형과 J턴형의 귀농유형보다는 I턴형이 적응에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클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3)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정도 변인과의 관련성

농촌이주 준비 과정변인 중 이주준비정도(이주준비여부, 준비년수, 이주자금)가 귀농유형과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5>와 같이 이주자금정도만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자금정도의 귀농유형별 차이를 보면, U턴형의 경우 '3000만원 미만'의 준비정도가 50.6%, '3,000~8,000만원'이 26.2%를 차지하였다. J턴형은 '3000만원 미만' 준비

<표 4> 귀농유형별 농촌경험정도 변인과의 관련성

변인		U턴형	J턴형	I턴형	chi-square	N(%)
농촌 경험	있	161(92.5)	116(87.2)	38(39.2)	113.086***	
	없	13(7.5)	17(12.8)	59(60.8)		
농촌 사정 인지 정도	전혀 알지 못함	10(5.7)	8(6.0)	20(20.6)	62.367***	
	알 지 못 함	15(8.6)	9(6.8)	23(23.7)		
	보 통 이 다	18(10.3)	37(27.8)	18(18.6)		
	조금 아는 편	71(40.8)	45(33.8)	24(24.7)		
	매우 잘 아는 편	60(34.5)	34(25.6)	12(12.4)		

***p<.001

<표 5>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정도 변인과의 관련성

변인		U턴형	J턴형	I턴형	chi-square	N(%)
이주 준비 여부	준비기간 있었다	86(49.4)	75(56.4)	60(61.9)	4.112	
	준비기간 없었다	88(50.6)	58(43.6)	37(38.1)		
준비 년수	1년 미만	9(10.7)	8(10.8)	8(13.3)	2.504	
	1~3년 미만	39(46.4)	32(43.2)	25(41.7)		
	3~5년 미만	10(11.9)	11(14.9)	12(20.0)		
	5년 이상	26(31.0)	23(33.9)	15(25.0)		
이주 자금	3000만원 미만	87(50.6)	49(36.8)	32(33.3)	15.234*	
	3000~8000만원미만	45(26.2)	35(26.3)	25(26.0)		
	8000~2억원 미만	31(18.0)	40(30.1)	27(28.1)		
	2억원 이상	9(5.2)	9(6.8)	12(12.5)		

*p<.05

〈표 6〉 귀농유형별 영농경험정도 변인과의 관련성

변인		U턴형	J턴형	I턴형	chi-square	N(%)
영농 경험 여부	있	104(59.8)	68(56.1)	18(18.6)	43.801***	
	없	70(40.2)	65(48.9)	79(81.4)		
영농 교육 이수	교육 받음	74(42.5)	58(43.6)	38(39.2)	.478	
	교육 받지 않음	100(57.5)	75(56.4)	59(60.8)		
영농시 애로 사항	일손 부족	47(27.6)	42(32.1)	26(27.7)	8.581	
	과다한 노동	25(14.7)	13(9.9)	15(13.4)		
	농사환경	27(15.9)	15(11.5)	15(13.4)		
	경제성(가격, 판로)	59(34.7)	44(33.6)	25(32.4)		
	영농기술	12(7.1)	17(13.0)	13(13.8)		

***p<.001

36.8%, '8,000만원~2억원'의 비율이 30.1%의 순위를 보였다. I턴형은 '3000만원 미만'이 33.3%, '8,000만원~2억원'이 28.1%, '3,000~8,0000만원'이 26.0%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서 '2억원 이상'을 귀농자금으로 준비한 경우가 10% 이상을 차지하여 귀농생활의 경제적인 여유가 더 있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반면에 U턴형의 경우 농촌에서의 생활경험이 있고, 농촌생활사정을 충분히 지각한 상황에서 적은 이주자금으로 시작하여 농사일을 생업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의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4) 귀농유형별 영농경험정도 변인과의 관련성

귀농유형별 영농경험 정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구체적인 결과를 보면 귀농유형과 영농경험여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U턴형과 J턴형의 경우 농사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서 많았던 반면 I턴형은 80% 이상이 농사를 지어본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귀농 후의 농촌생활의 대다수를 차지할 농사일임을 감안할 때 적응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예측된다. 그 동안 익숙해진 곳을 떠나 삶의 터전을 낯선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니다. 더구나 전혀 연고 없는 농촌에서 노후 삶을 영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농촌이주 전의 철저한 사전준비는 농촌생활 적응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절차라 할 수 있다.

2. 귀농유형별 농촌 적응과정의 실태

1) 귀농유형별 사회적 지원망의 차이

귀농유형에 따른 이웃도움의 수혜정도를 분석한 결과 〈표 7〉와 같이 귀농유형과 도움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U, J, I턴형 등 세 유형이 거의 유사한 도움의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우선 경조사비나 생활비 부족 등 경제적인 도움에 대해서 이웃에게 도움을 받는 정도는 다른 도구적 도움이나 정서적 도움에 비해 각 유형별 평균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구적 도움정도는 마찬가지로 세 유형의 귀농자들 모두 평균 3점 만점에 2점 이상의 점수를 보여 이웃으로부터 도구적인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서적 도움의 정도 역시 세 유형 모두 평균 3점 만점에 2점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농촌생활에서 이웃관계를 통해서 고독감이나 외로움 등을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평균이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은 도구적, 정서적 도움이고, 경제적 도움은 평균 이하인 것을 알 수 있다.

귀농유형별 이웃과의 관계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이웃과의 관계향상 노력은 총 5개 문항으로 이웃주민과의 인사정도, 음식대접, 경조사 참여정도, 마을행사 참여정도, 농사일의 조력정도로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귀농유형별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없었다. 귀농유형별로 이웃관계향상 노력이 차별화되지 않는다는 결과는 주목할 만한 하다. 이는 관계향상을 위한 노력의 5개 문항에 대한 평균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주민과의 인사 정도'와 '차나 음식을 대접한다'의 항목은 귀농자들이 이웃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스스로 일방의 노력만으로 손쉽게 이웃과 친

〈표 7〉 귀농유형별 이웃도움 정도와의 차이

변인	집단	M(SD)	F	S
경제적 도움정도	U형	1.86(.58)	1.89	
	J형	1.83(.62)		
	I형	1.71(.66)		
도구적 도움정도	U형	2.06(.56)	.20	
	J형	2.07(.57)		
	I형	2.02(.66)		
정서적 도움정도	U형	2.23(.54)	1.31	
	J형	2.18(.58)		
	I형	2.31(.62)		

〈표 8〉 귀농유형별 이웃관계항상 노력정도의 차이

변인	집단	M(SD)	F	S
이웃 주민과 만나면 먼저 인사한다.	U형	4.18(.71)	.348	
	J형	4.26(.72)		
	I형	4.22(.83)		
이웃들을 초청하여 차나 음식을 대접한다	U형	3.59(.97)	.113	
	J형	3.62(.99)		
	I형	3.61(1.05)		
마을민의 경조사에 참석한다	U형	4.35(.75)	2.100	
	J형	4.25(.80)		
	I형	4.14(.92)		
마을의 각종 행사나 공동작업에 참여한다	U형	3.25(1.37)	1.760	
	J형	2.95(1.40)		
	I형	3.04(1.41)		
마을민의 농사일 (품앗이 등)에 참여한다	U형	3.91(.69)	1.781	
	J형	3.83(.70)		
	I형	3.81(.78)		

해질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특히 5점 만점에 4점 이상을 차지한 ‘인사를 먼저 한다’는 것은 귀농자들이 이웃과의 친해지고자 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귀농인과 이웃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항상을 할 수 있는 노력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평균의 차이를 보인다. ‘마을 주민의 경조사에 대한 참석’이나 ‘농사일에 대한 품앗이 참여’ 정도는 별다른 거부감 없이 귀농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마을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귀농인들도 농촌생활

〈표 9〉 귀농유형별 농촌생활 인식수준과의 차이

변인	집단	M(SD)	F	S
여가문제	U형	3.60(1.10)	1.737	
	J형	3.58(1.27)		
	I형	3.33(1.34)		
의료문제	U형	3.62(1.05)	1.325	
	J형	3.60(1.14)		
	I형	3.81(1.01)		
편의시설문제	U형	3.13(1.10)	.037	
	J형	3.11(1.16)		
	I형	3.15(1.26)		
인적교류문제 (이웃과의 관계문제)	U형	2.47(1.03)	1.248	
	J형	2.66(1.17)		
	I형	2.62(1.23)		
교통문제	U형	3.02(1.26)	1.572	
	J형	3.24(1.32)		
	I형	3.27(1.26)		
경제문제	U형	3.65(1.16)	.189	
	J형	3.67(1.25)		
	I형	3.51(1.30)		

에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마을 공동행사에의 참여’에 대한 항목은 가장 낮은 평균값을 보이는데, 이는 마을 공동행사는 농촌 지역민의 공동체적인 힘을 발휘하고, 외지에서 온 귀농인과 차별화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음으로 귀농인들의 일방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오히려 원주민의 귀농인에 대한 수용 노력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2) 귀농유형별 농촌생활 인식수준과의 차이

6개영역 중 귀농자들 모두 여가문제, 의료문제, 경제문제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문제 인식은 원주민과는 다르게 도시생활에서 다양하고 손쉽게 접할 수 있었던 운동, 취미와 같은 여가활동들이 귀농 후 한정된 지역 내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야기시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을 때 귀농 후 만족감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의료문제나 경제문제는 귀농인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원주민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동안 생활근거지가 도시와 비교해 볼 때, 귀농인들은 의료서비스의 열악함과 경제활동 영역이 제한되는 것에 대해 더 많은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문제인식을 더 크게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은퇴 후 귀농인의 농촌생활만족도 차이

귀농유형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정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귀농유형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U전형의 귀농자에 비해 J전형과 I전형의 귀농자들이 각 영역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귀농자들의 경제활동과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나머지 영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가 낮은 것은 앞의 농촌생활 문제 인식에서 의료문제에 대한 불만의 정도가 높은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농촌의 의료시설의 양적부족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인식은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농촌생활에서 경제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평균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농촌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서 영농활동 이외의 다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J전형과 I전형의 경우 농촌생활에 대한 경험부족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으로서 영농생활에 하기에는 한계점을 드러내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표 10〉 귀농유형별 농촌생활만족도의 차이

변인	집단	M(SD)	F	S
가족관계 만족도	U형	3.98(.84)	.425	
	J형	4.06(.81)		
	I형	4.04(.82)		
이웃관계 만족도	U형	3.84(.73)	1.545	
	J형	3.99(.70)		
	I형	3.90(.74)		
주거상태 만족도	U형	3.45(.88)	1.636	
	J형	3.64(1.00)		
	I형	3.62(1.08)		
건강상태 만족도	U형	3.26(.86)	2.628	
	J형	3.52(.95)		
	I형	3.39(1.10)		
경제활동 만족도	U형	3.02(.86)	.642	
	J형	3.11(.95)		
	I형	3.13(.91)		
영농활동 만족도	U형	3.31(.87)	.650	
	J형	3.35(.89)		
	I형	3.43(.80)		

반면에 귀농유형별 전반적인 농촌생활만족도와와의 차이를 보면 가족관계 만족도가 다른 영역보다 평균값이 높은 점은 주목할 만 하다. 은퇴 후 귀농생활은 부부 또는 가족이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증대되고 도시보다 서로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증가하면서 가족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예측할 수 있다. 노년기의 귀농생활은 함께 할 수 있는 영농활동을 비롯한 가족생활, 여가생활 등 일상의 대부분의 영역에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최대화됨으로서 부부 상호작용의 기회를 증대시키고 이는 가족생활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게 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농촌의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노부부관계, 노인부모와 성인자녀관계, 조부모와 손자녀관계 등의 보다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으로써 성공적 노년기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도시 은퇴자들의 농촌이주 후 성공적으로 농촌 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귀농유형별로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이주한 은퇴자들의 귀농유형별로 이주준비 실태와 농촌이주 후 농촌생활의 적응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이 귀농유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특성이 귀농유형별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I턴형은 U턴형과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가족

형태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I턴형은 교육수준이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은퇴 전 직업유형의 경향성에서도 볼 수 있었다. 결국 I턴형은 농촌생활의 경험이 없으며,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귀농생활에 있어서 다른 유형보다는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전원생활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서 농촌적용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심각성이나 문제해결의 어려움을 더 크게 지각할 수 있다. 특히, 농사일이나 지역주민과의 관계유지는 귀농자 자신만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귀농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가족유형 특성에서 U턴형의 경우 혼자나 부부만 생활하는 유형이 가장 많았다는 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다. 농촌생활은 도시와는 다르게 일과 가정이 함께 하고 또, 자녀동거 비율이 낮기 때문에 부부가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귀농 이전까지의 부부관계는 귀농 후 부부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더 나아가 귀농적응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자녀와의 동거율이 높지 않다는 점은 귀농 후 부부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해결을 위한 자원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로의 관계가 원만할수록 새롭게 시작하는 귀농생활에 있어서 후원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준비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귀농을 하게 되는 동기가 차이를 보이는데 U턴형은 '경제적인 여건 때문'이라는 현실적인 이유를 직접적인 동기요인으로 선택하고 있는데 반해, J턴형과 I턴형의 경우는 '농촌이 좋아서'라는 이상적인 전원생활의 동기에서 귀농을 선택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귀농 후 노인들이 농촌에 대한 기대감부터 다르기 때문에 농촌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현실적인 이유를 갖는 이들의 경우 농경생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적응하려고 할 것이며, 은퇴 후 경제적 자립에 대한 기대감이 클 것이다. 이는 이주자금에서도 알 수 있는데 U턴형이 가장 적은 이주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적은 이주자금으로 농촌으로 유입되어 수입을 창출하고 그를 통해서 노후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귀농 후 경제활동과 수입의 정도는 은퇴 후 노인생활 자체를 좌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도시민들이 막연히 갖고 있는 낭만적인 농촌은 스트레스가 없고, 여유있는 생활이라 생각하게 되고 이러한 태도는 현실과 기대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가중시킬 수 있다. 또, 귀농 당시 이주결심에 이르기까지 이주를 꺼렸던 주요 이유가 U, J, I턴형 모두 힘든 농사일 때문인 것으

로 나타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농사일에 대한 우려는 노년기에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로 심리적인 부담감을 갖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농촌으로의 귀농을 희망한다면 영농생활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임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사일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이주한 귀농인들의 능력에 맞는 작업방법 등이 개발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I턴형은 이들 대다수가 농촌거주경험이 없었고, 농촌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영농경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낯설고 막연한 농촌생활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제시하였다. 반면에 농촌이주자급 준비는 다른 유형에 비해 많이 한 것을 종합해 볼 때 지역민들로부터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진다.

셋째, 귀농유형별 농촌이주 적응과정을 분석한 결과에서 사회적 지원관계는 귀농유형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전체적으로 유사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인들은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이나 주변에 대한 인식여부와 같은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낯선 환경에 독자적으로 적응해 가거나, 이웃에의 더 많은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양분화 됨을 알 수 있다. 귀농인과 이웃주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관계형상을 할 수 있는 노력에서 '마을 공동행사에의 참여'는 외지에서 이입된 귀농인과 농촌 원주민과의 공동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는 귀농인들만의 개별 노력영역이 아닌, 원주민의 귀농인에 대한 수용정도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귀농인의 사회적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그들이 가진 자원을 지역사회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서 원주민과 귀농인이 상생하는 전략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귀농인들이 여가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귀농인들이 도시에서와 달리 접근성이나 다양성의 맥락에서 여가활동에 대한 한계로 인한 불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활동이나 복지시설에서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한다면 서로에게 만족스러운 농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귀농유형에 따른 농촌생활만족도 정도의 차이에서 전체적으로 U턴형의 귀농자에 비해 J턴형과 I턴형의 귀농자들이 각 영역(가족관계, 이웃관계, 주거상태, 건강상태, 경제활동, 영농활동만족도)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귀농자들은 경제활동과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다른 나머지 영역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건강상태나 경제활동에 대한 만족정도는 귀농노인들에게 제한되기보다는 노인 전체가 갖는 문제라고 여겨진다. 단지 귀농노인의 경우 농촌과 도시의 양쪽 생활을 모두 경험하였기 때문에 귀농 후 농촌에서의

건강에 대한 의료시설이나 경제활동에 대한 불만의 정도는 원주민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건강생활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이나, 경제활동을 위한 귀농유형에 알맞은 노인일자리 발굴 등은 앞으로 농촌으로의 귀농인구가 증가할수록 거시적 측면에서 노인복지정책에서 고려해야할 측면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귀농인의 귀농유형별로 농촌 이주준비 과정과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해 내는 연구로 막상 은퇴 후 농촌이주를 적극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접적인 방안에 그치는 제한점이 있다. 농촌이주 준비 과정 실태에서 각 요인별로 귀농유형 집단간에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농촌 적응과정에서는 각 요인별로 귀농유형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익숙한 사람이 농촌생활을 영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적응은 귀농유형별 차이는 보이고 있어, 귀농인의 수요 및 욕구에 부응하는 대책이 필요함에 귀농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주안점을 두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U턴형은 자녀등거 없이 부부만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부부갈등 발생시 해결책이 적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U턴형 귀농자 부부갈등 해결 및 부부관계향상 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부부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J턴형은 연고자가 없는 타향인 농촌 이주로 농촌생활 적응을 위한 원주민과의 관계형상이 매우 필요하다. 「J턴형 귀농자의 원주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마을행사 참여(예: 마을체육대회, 경로잔치 등)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귀농인 자신만의 노력만이 아닌 서로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원만한 관계형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I턴형은 농촌에 아무런 연고가 없을 뿐만 아니라 농촌생활과 영농활동 자체가 생소한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I턴형 귀농자 귀농지원준비 프로그램 개발」 및 「I턴형 귀농자 농촌 체험 및 영농교육 프로그램 개발」등을 통해서 농촌적응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대구, 김경남, 김민수, 이웅, 변규식(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연구. 농림부.
- 고승덕(1996).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 추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구본석(1999). 귀농자의 영농정착 만족도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중돈, 조주연(2000). 노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0(3), 61-76.

- 김재홍(1998). 귀농이 농촌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농업과학연구**, 25(1).
- 김경미, 정지용(1990). 농촌성인의 사회적 적응과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23(3), 75-94.
- 김동근(1998). 농업정책방향과 귀농대책. 전국귀농운동본부.
- 김미진(1999). 노인의 사회활동 및 여가활동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성훈(2006). 장수시대의 도래와 인생의 이모작 설계.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Ⅱ. 도농교류 심포지엄 자료집.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3-23
- 김익기, 김동배, 모선희, 박경숙, 원영희, 이연숙, 조성남(1999). **한국 노인의 삶 · 진단과 전망**. 서울: 미래인력연구소센터.
- 김인자(1982). **적응심리: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개인 성장**. 서울: 정민사.
- 김일수(1999). 도시민 귀농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최고관리자과정논문집**, 15, 149-158.
- 김재돈, 남철현(1997).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보건협회지**, 23(2), 173-192.
- 김주현(1999). 귀농인의 농업기술정보획득과 실태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농업 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김형용(1998). 귀농자의 실태와 정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축산경영학회지**, 14(1), 205-223.
- 남정덕(2000). 귀농형 실버타운의 보급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노동부(1998). 정부의 실업대책과 귀농희망자 영농훈련대책.
- 농림부(2000). 귀농자들의 농촌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농림부**.
- 농림부(2006). 최근 귀농실태와 지원대책방안 연구. 2005년 농림부 정책과제보고서. **농림부**.
- 농촌진흥청(1998). 귀농농가의 경영모형 길잡이.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2004). 일본의 농산어촌 고령자대책. **농촌진흥청 번역서**, 203-204.
- 농촌진흥청(2004).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역별 고령화 특성 및 변화분석**.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촌진흥청(2006).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Ⅱ. 도농교류 심포지엄자료집.
- 동아일보, 2005
- 만상기(1998). 귀농의 현황과 과제. 농촌희생과 자립적 농업을 위한 귀농정책세미나 자료. 전국귀농운동본부.
- 박경란, 제미경, 오찬욱(1995). 대도시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 가족 · 소지 · 주거생활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01-114.
- 박광희, 한혜정(2002).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11, 43-61.
- 박상철편(2002). **한국의 백세인**.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영일(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 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재규(1985). 도시 빈민지역 이주자들의 이주 및 적응과정에 관한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창규(1983). **뿌리내리는 귀농사업**. 서울: 셋길, 39~42.
- 박충선(1990). 한구여성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적 연구. **여성연구**, 8(3), 115-153.
- 배민식(1999). 최근의 귀농동향과 지원책 모색. **농민과 사회**, 15,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 보건복지부(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 사단법인 전국농업기술자협회(2001). 제2의 인생을 농촌에서 건강하고 보람있게. 제2차 도농녹색교류심포지엄 자료집.
- 서규선, 변재면(2000). U턴 귀농자 장 · 단기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농촌지도학회지**, 7(1), 137-153.
- 서미경, 김정석(1995). 한국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 **보건사회연구**, 15(2), 97-116.
- 서병숙, 이현(1995). 사회적 지원망과 노인의 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33(3), 43-57.
- 송병국, 정지용(1987). 농촌성인의 생활만족도와 그 관련변인. **한국농업교육학회지**, 19(1), 85-95.
- 신윤철, 김동섭, 배성의, 윤준상(1998). 귀농자의 귀농동기 및 배경특성 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 산업개발연구**, 59-70.
- 신은영(1993). 농촌노인의 건강상태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영희(1995). 동 · 별거형태가 한국노인의 심리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15(2), 97-116.
- 윤순덕(2004). 농촌노인의 생산적 활동과 심리적 복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동하(1998). 귀농자의 농촌적응과 관련변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병철(1999). **귀농: 우리는 왜 귀농해야 하는가?**, 서울: 두레.
- 이영대(1981). 성공적인 영농종사자의 영농정착과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유형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관(1998). 귀농자의 영농정착과 관련된 특성분석. **공주대학교 산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형실(1999). 농촌 부부가구노인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 한국노년학회지 19(3), 109-120
- 임혜영(1999). 귀농자의 적응과 복지에 관한 연구: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광주대학교 경성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인협, 최성재(1987). 노인복지학.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한모(2002). 귀농인의 농촌생활과 영농정착 과정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동석(1998). 지역 귀농인들의 영농실태와 그 개선대책 연구: 칠곡군의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농업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록환(1998). 귀농가구의 생활실태 분석, 농촌생활과학, 19(1), 38-41.
- 천규식(1997). 귀농(歸農), 왜 어떻게 해야 하나. 경향잡자: 1997년 7월호, 33-40.
- 최원규, 백승우(2001). IMF 이후 귀농자의 실태와 정책방안. 서울: 나눔의 집.
- 통계청(2002). 2000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고령자-. 통계청.
- 한국노년학회(2000). 노년학의 이해. 서울: 대영출판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 한경혜, 윤순덕(2001). 자녀와의 동·별거가 농촌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1(2), 163-17
- 한승욱(1985). 지식인의 귀농의미 재고. 고려대학교 어문논집, 124(1), 833-844.
- 허미화 역(1997). Merriam, Sharan B. 질적 사례연구법. 서울: 양서원
- Bock, E. W., & Webber, I. L.(1972). Suicide among the elderly: Isolating widowhood and mitigating alterativ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4, 24-31.
- Carlson, J. E., Junk, V. W., Fox, L. K., Rudzitis, G., & Cann, S. E.(1998). Factors affecting retirement migration to Idaho: an adaptation of the amenity retirement migration model. *The Gerontology*. 38(1), 18-24.
- Costello.(1977). *Urbanigation in middle eas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50.
- Fielding. G. J.(1974). *Geography as social science*. New York: Harper and Row Publications.
- Graves, N. B., & Graves.(1974). Adaptive strategies in urban migration. *Annual review of Anthropology*. Vol. 3. 121-126
- Lee, On-Jook.(1980). *Urban-to-rural return migration in Korea*.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Lee, On-Jook., & Kim, Kyong-Dong.(1980). Migration and Adaptation to the City: Comparative Profile of Returners and Stayers in Korea. *Bulletine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Vol 8.
- Melville, M. B.(1978). Mexico women adapt to migrat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 12.
- Moore, J. M.(1971). Mexican Americans and cities: A study in migration and the Case of Informal Resource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Vol.5, 293-294
- Mullins, L. C., & Dugan, E.(1990).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family and friendship relations on residents' loneliness in congregate housing. *The Gerontology*. 30(3), 377-383.
- Roseman, C. C.(1981). *Population redistribution in the Midwest*. NCRC, Iowa State Univ.
- Sjoberg, G.(1969). Cities in Developing and in Industrial Societies: A Cross Cultural Analysis. in Philip M. causer & Leo. F. Schnore(eds.). *The Study of Urbaniz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Sterns, H. L., & Sterns, A. A.(1995). Health and the employment capability of order Americans. In BASS, S. A.(Ed.). *Order and Active: How Americans over 55 Age Contributing to Society*. New Haven. C. T : Yale University Press. p. 11
- Warnes, A. M., & Law, C. M.(1982). The destination decision in retirement migration. in: Warnes. A. M.(ed.), *Geographical Perspectives on the Elderly*. Chichester: Wiley. 53-81.

(2006년 8월 31일 접수, 2006년 11월 28일 채택)